metro

메트로 2013년 2월 22일 금요일 제2675호 www.metrobusan.co.kr

앱만 내려받으면 모바일카드 된다

NEWS p/02

회삿돈 47억 빼돌리고 '페이스오프'

NEWS p/03

국민행복·희망의 시대 '활짝'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4만~20만원 지급 등
박근혜 정부 21개 국정전략·140개 과제 발표

내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4만~20만원씩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성)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 지원폭을 확대하고 임플란트(인공치아) 건강보험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확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척하며 지구촌 행복 시대에 기여하는 모범 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경제민주화보다는 고용과 복지 등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대선 기간 박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인수위는 140개 세부 과제에 세세히 적용됐다고 반박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 보완 대책을 강구해 경제민주화 취지를 정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1개 국정전략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한 대선 공약이 망라됐다. 인수위는 가계부채 대책인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새 정부 출범 즉시 발족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한 국민행복연금 형태로 도입해 모든 계층을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소득 하위 70%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그룹 300만 명에게는 최대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재원은 증세 없이 국고 및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원 활용 방안은 반발을 우려해 폐기했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은 올해 85%를 시작으로 2016년 100%를 목표로 지원폭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은 2014년 75세 이상 노인 지원을 시작으로 2016년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법조 개혁 공약 중 중요하게 다뤄진 대검 중수부 폐지는 확정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1004@metroseoul.co.kr

'박근혜 우표' 나왔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나흘 앞둔 21일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우표박물관에서 우체국 관계자들이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우표는 기념우표 1종, 시트 1종, 박근혜 당선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첩 1종으로 오는 25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된다 /뉴시스

'구글 안경' 먼저 써보기도 힘드네

50단어 이내로 설명문 테스트 실시
체험단 뽑혀도 160만원에 구매해야

안경만 쓰면 날씨·교통·건물정보를 검색하고 화상통화, 자동번역까지 할 수 있는 SF영화 속 '상상'을 조만간 일반인들도 경험할 수 있다.

구글은 차세대 단말기로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 '구글글라스'를 체험할 일반인들을 선정, 판매하는 행사를 벌인다고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구글은 이 안경을 이용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적어내는 사람들 가운데 과감하고 창의적인 인물들을 선정해 1500달러(약 160만원)에 제공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희망자는 50개 단어 이내의 설명문을 작성해 '#ifihadglass'를 붙여 구글플러스(+ProjectGlass) 혹은 트위터(@projectglass)에 27일까지 보내야 한다. 단 미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판매되는 구글글라스는 '익스플로러(Explorer)' 버전으로 내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6월 회사가 주관한 한 콘퍼런스에 참가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개당 1500달러에 구글글라스를 판매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이날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구글글라스의 새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약 2분짜리 영상에는 구글글라스를 착용하고 열기구 탑승, 제러글라이딩, 발레, 탁구, 롤러코스터 타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특히 중국어를 영어로 자동 번역해 구글글라스에 보여주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 밖에 음성명령, 사진·동영상 촬영, 내비게이션 기능도 눈길을 끈다.

구글글라스의 외관도 이날 공개됐다. 구글글라스는 짙은 회색, 주황색, 갈색, 흰색, 하늘색 등 모두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박국환기자 kmiles@

무급휴직자도 최대 720만원 받는다

이르면 5월부터 月120만원씩 6개월 지원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 상태에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이 월 최대 12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4월 24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경영 사정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정부가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절반가량을 하루 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80일간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8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3000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사업주가 유급휴업•휴직 근로자에게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수당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받게 하려면 휴업 또는 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을 세워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지원 결정을 받으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급휴업 이력이 없는 사업장의 휴업•휴직 근로자들도 최대 6개월간 720만원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생계 안정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illegible]기자 e [illegible]@metroseoul.co.kr

앱만 깔면 모바일카드

신용카드 없이 바로 결제 … 카드4사 공동개발

지금까지 얼리어답터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모바일카드가 빠르게 대중화될 전망이다.

21일 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 등 카드 4사는 새로운 모바일 결제 공동 규격 개발을 완료하고 3월 이후 준비가 완료되는 카드사부터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공통 규격은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왔던 제약 조건들을 회원 및 가맹점의 측면에서 개선한 데 의미가 있다. 애플리케이션형 모바일카드(앱형 모바일카드)가 핵심이다.

앱형 모바일카드는 기존의 모바일카드가 휴대전화의 유심(USIM)칩에 내려 받아 사용하던 것과는 달리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자신이 보유한 카드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회원 입장에서는 별도의 모바일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좋아진 셈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도 바코드·QR코드, NFC, 직접 입력 등 4가지 거래 방식을 구현해 카드 결제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단말기의 간단한 업그레이드만으로 수납이 가능하다.

앱형 모바일카드의 상용화 시점에는 NH농협카드·롯데카드도 참여키로 해 6개 카드사의 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농협과 롯데가 보유한 유통 가맹점에 앱형 모바일카드가 적용되면 고객 및 가맹점의 확산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쟁이 치열한 카드업계에서 유례없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라며 "그 동안 결제 인프라 확산을 위한 비용 문제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지 못했던 만큼, 앱형 모바일카드가 시장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송승헌과 찰칵 1일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6층 마담투소 전시관에서 송승헌의 밀랍인형 전시를 기념해 홍보도우미가 다정한 연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강의 위약금 덤터기 피해 급증

인터넷 강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학습 수단으로 인터넷 강의가 뜨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들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기준을 위반한 위약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가 398건으로 전년에 비해 39.6%나 늘었다고 밝혔다. 2011년 피해 건수는 285건으로 2010년 259건에 비해 역시 10%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398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과정에서 업체에 의한 부당 사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용별로는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대금 환급 거절'이 144건(36.2%),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 141건(35.4%), '계약해지 후 대금 환급 지연' 51건(12.8%)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학생 대상 강의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먼저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성기자

<SKT> <KT>

색다르게 vs 통크게

영업정지 공수교대 오늘부터 막판 3라운드… 가입자 쟁탈 치열

영업정지 딱지를 단 골키퍼가 22일부터 KT로 바뀐다.

21일 골키퍼 장갑을 벗는 SK텔레콤, 가장 먼저 골대를 지켰던 LG유플러스는 KT의 골망을 흔들기 위해 다양한 공격 전술을 선보일 전망이다. KT 역시 20일간의 영업정지 기간 '통큰 기변'을 내세워 가입자 이탈을 막는다.

KT는 영업정지 기간 자사 가입 상태를 유지한 채 기기만 변경하는 고객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통큰 기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기기변경 희망자 중 기존 단말 사용 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고객이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아이폰5를 구입할 때 요금제에 따라 10만~27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또 최근 6개월 평균 국내통화료를 기준으로 '우량 고객'을 선별해 4만~7만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며 여기에 기기변경 시 올레 인터넷과 결합하면 최대 26만4000원까지 더 할인해준다.

중고폰 매입 프로그램인 '올레 그린폰' 서비스를 통해 사용 중이던 단말을 반납하는 가입자에게는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 할인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색다른 새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입자 유지에 나선다.

신규 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고객 중 매일 선착순 2만2222명에게 데이터 2GB(기가바이트)를 선물한다. 매일 추첨을 통해 백화점 외식상품권, 영화예매권 등 선물을 나눠주며 대리점에서는 해외여행권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기기변경자를 위해 실시하던 '착한기변' 프로그램의 대상 모델에 최신 단말기인 LG전자의 옵티머스G 프로를 추가해 모두 6가종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박성훈기자 zeal@[illegible]

정월 대보름 음식 자리볼까 정월 대보름을 앞둔 21일 경기 화성 경기도농업기술원 향토음식전수관에서 향토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오곡밥 진채식 등 정월 대보름 음식 요리법을 배우고 있다. /뉴시스

47억 빼돌리고 페이스 오프

회삿돈 횡령후 추적 피하기 위해 얼굴 성형

회삿돈 47억원을 빼돌린 후 성형수술로 완전범죄를 꿈꾼 30대 회사원이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모 반도체업체에서 4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회사 재무회계과장 윤모(34)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5월 입사한 윤씨는 지난달 4일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2억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47억원을 빼돌렸다. 윤씨는 재무팀 부하 직원을 미리 휴가 보내는 등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특히 윤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눈, 코, 이마 등 얼굴 대부분을 성형수술했다. 그는 횡령한 돈으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즐기다 경찰의 추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파묻은 40억 회수 21일 아산경찰서 회의실 탁자 위에 압수된 현금다발이 쌓여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성형수술한 윤씨의 얼굴은 예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상태"라면서 "현재 현금 40억5000만원을 회수 조치했으며 윤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4월부터 청계천 자전거도로 씽씽

봄·가을 일요일마다 운영

올해부터 4~6월과 9~11월 중 매주 일요일에는 청계천변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청계광장~청계7가 3.8㎞ 구간에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전거도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청계천로 양측 기존 도로에 라바콘(강에대), 임시 차선용 테이프, 이동식 안내간판 등을 마련해 고, 폭 1.5~3m의 자전거도로를 분리 설치할 계획이다.

청계7가부터 신답철교까지 2.1㎞ 구간은 폭 1.1m의 자전거도로와 연결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청계천로 자전거도로가 청계7가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후 서울광장까지 갓길로 자전거를 타야 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청계천의 약 5.9㎞ 구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천로 주변의 전통시장, 상가 등을 고려해 월말에는 자전거도로를 운영하지 않는다.

시는 경찰과 함께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 내년부터 청계천 자전거도로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채동오기자 e.[illegible]@

찾아가는 배달강좌 어때요

남구 '러닝콜' 운영…다음달 4일부터 신청접수

부산 남구는 주민참여형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배달강좌 러닝콜(Learning Call)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러닝콜(Learning Call)이란 학습자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등록된 평생학습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배달 형식의 학습지원제도다.

신청 기준은 최소 8인 이상으로 구성된 남구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 장소(자택, 경로당,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를 선정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학원·교습소·연습실 등 영업소 형식의 장소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강좌는 인문·교양, 문화·예술, 건강운동, 어학, 취업 자격증 등 배달이 가능한 모든 강좌다.

한 강좌당 강의 시간은 20시간 이내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 남구청 평생교육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607-4545

또 사하구도 다음달부터 무료 배달강좌제를 시행한다.

구청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해 주며 강의 시간은 최장 20시간이다. 수강 인원이 최소 10인 이상이고 강의장소를 확보하면 신청 가능하다. 문의 051)220-4802

낙동강 경정장 유치하고…체육시설 통합운영하고…

'그린 매출' 1조 연다

스포원 출범 10년 비전 선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이 출범 10년을 맞아 올해를 제2도약기 원년으로 삼아 향후 5년 이내에 매출 1조 원 달성을 선포했다.

스포원은 21일 레저 스포츠 전문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스포원 뉴 비전 선포식'을 열고, 장기발전 슬로건으로 그린매출 1조 원 시대와 함께 부산시 재정기여 1000억 원, 나눔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스포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장외지점을 확충하고 낙동강 경정장 유치 등 수상레포츠공원 조성, 부산시 체육시설 통합 관리·운영 등 3대 핵심 전략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장외지점의 경우 5곳을 추가하고 현재의 광복점도 확장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마무리 되면 매출 증가 1797억 원, 시 재정 기여 3214억 원, 공익 기금 87억 원이 예상된다.

수상레포츠공원 조성은 겨울철에도 경기가 가능한 낙동강 경정장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체육시설 통합관리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때 건립한 각종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우선 올해 강서체육공원과 기장체육관을 통합관리하고 2단계로 2015년 사직종합운동장과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영도사격장 등 모든 체육시설을 통합·관리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2년 말 기준 4224억 원의 총매출은 5년 이내에 1조154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스포원측은 전망했다.

또 매출 증가와 함께 시 재정기여는 5년 이내에 1240억 원, 지방체육진흥 기금 등 공익기금은 167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올해 노인 일자리 1만8650개 창출

부산시가 '활기찬 노년 지원 사업'의 하나로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올해 347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1만865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예산은 전년 대비 81억원, 30.5% 늘었고 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750개, 4.2% 늘었다. 시는 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 등 국비 지원 일자리, 시비를 지원하는 민간 분야 일자리로 나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주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식품제조와 판매 사업, 학습지도강사 파견 사업, 출산 가정 육아 도우미 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사업 등이 있다. 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는 16개 구·군과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회 등 98개 수행기관이 함께한다.

시는 다음달 초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하고 수행기관별로 노인들의 근무를 시작토록 할 방침이다.

기장 미역 풍년 2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어민들이 수확한 미역을 건조시키고 있다. 수확철인 지난해 연말부터 기장 미역의 수확량이 크게 늘어났다. /연합뉴스

자성대공원서 인문학 강연

부산 동구는 22일 오후 6시30분 자성대공원에서 올해 첫 인문학 강연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성대 평가대 앞 광장에서 [illegible] 답방산책(영가대→진남대), 답방연주(YWCA 브라스밴드), 인문학 강연(진남대), 조선통신사역사관(자유 관람) 등으로 진행된다.

강연은 심봉근 부산시 문화재위원이 '역사 속 자성대의 가치 재조명'을 주제로 진행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전' 연장

KNN월석아트홀에서 열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전-이름다운 날들의 기록'이 내달 17일까지 2주 연장된다.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이 전시회는 지금까지 5만명 이상 관람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회는 활기찬 새와 곤충, 생명력 넘치는 짐승, 열정 가득한 수중생물, 마음을 흔들어 놓은 풍경, 자연의 일부였던 사람 등 5개 관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사진가를 주제로 한 특별관으로 구성됐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일제점검

부산시는 시내버스의 안전 운행 및 차량 관리를 위해 21일부터 한 달간 일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내버스의 재생타이어 폭발 및 천연가스(CNG) 버스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벌여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내달 21일까지 부산시에 등록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33곳 업체 2511대 중 23곳 업체 1328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차량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불량 및 파손 차량 운행 여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은호
부산지사장·직대	김형중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5-2100
독자센터	02)721-9862

[illegible]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나왔다

제도 도입 1년여만에 처음 … 수급자는 부산 전자제품 판매하는 60대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이후 자영업자 첫 실업급여 수급자가 나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진구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3개월 동안 무전기 CCTV 등을 판매하다가 폐업한 신모(61)씨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첫 수급자가 됐다고 21일 밝혔다.

신씨가 관련 업계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다 2005년 회사를 나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은 밝았다. 하지만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영이 힘들어졌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신씨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정은 더욱 나빠져 연매출이 1000만원 이하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 1월 말 폐업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신씨는 이번 폐업으로 앞으로 실업급여를 석 달간 월 115만원 정도 받게 된다.

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신씨는 "운영하던 사업을 접게 돼 마음이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며 "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은숙 부산고용노동청 사무관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증개정원장, 필요경비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잘 갖춰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 경영 악화(6개월 연속 적자 지속, 전년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김수희기자 ksh@metroseoul.co.kr

대선주조 '즐거워예'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

'광안대교 불꽃축제' 가장 인기

대선주조의 저도 소주 '즐거워예'의 8가지 상표 가운데 '광안대교 불꽃축제' 상표가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주조는 지난해 시민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8가지 상표와 5가지 색깔의 병뚜껑에 대한 부산 시민 선호도 조사를 벌인 결과 광안대교 불꽃축제 상표와 분홍색 병뚜껑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총 4500명의 부산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620명이 '광안대교 불꽃축제' 상표를 1위로 꼽았다. 2위는 21%인 945명이 뽑은 '친구야'가 차지했다.

이어 '해동대', '꼬마 고래 나들이', '해운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병뚜껑 선호도 조사에서는 42%가 분홍색을 꼽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하늘색, 노란색, 주황색이 뒤를 이었다.

박진배 대선주조 대표이사는 "광안대교 불꽃축제는 부산 소주라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디자인이 수채화처럼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광안대교 상표에 분홍색 병뚜껑이 조합된 소주 생산량을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NGO "해수부 세종시 입지 철회하라" 부산의 시민단체와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해양수산부부활국민운동본부'는 21일 해수부의 세종시 입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인력개발원, 국비지원 기술교육 받으실 분~

부산인력개발원은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 맞춤형 채용 예정자 취업 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인력개발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영남지역 유일한 직업훈련전문기관으로 현재 ▲컴퓨터응용기계 ▲컴퓨터응용선게제작 ▲컴퓨터금형설계 ▲자동화설비보전 ▲자동화제어시스템 등 5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교육은 1년 과정으로 3월에 개강하며, 올해 연말까지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로 홈페이지(ps.chamhrd.net)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 30%, 실습 70%로 구성돼 현장실습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또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매월 20만원의 훈련장려금도 지급된다.

문의: 051)626-4260

라이나생명 텔레마케터 모집

지난해 7월 부산 텔레마케팅 센터를 준청한 라이나생명이 전문 텔레마케터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360명의 텔레마케터가 활동하고 있는 부산본부는 올해 말까지 약 700명의 텔레마케터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적인 텔레마케터 양성을 위해 롤플레잉을 통한 실무 위주 교육, 외부강사를 통한 영업 스킬 노하우 교육,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일대일 맞춤 인큐베이팅 실습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051)559-0620

전시 컨벤션 전문가 양성과정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은 다음 달부터 5월까지 MICE 전문 인력 양성사업 'CE 과정' 8기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 인센티브투어 컨벤션 전시 영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이번 과정에서는 ▲컨벤션기획실무 ▲전시기획실무 ▲기획서 작성 ▲현장 실습 등을 실시한다.

실무 교육에는 호텔서비스아카데미(1박2일), 우수기업현장견학(1박 2일), 크루즈(오사카)현장실습(2박 3일) 등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미취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5명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e메일(micebusan@naver.com)로 가능하다. 문의: 051)740-7821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 '속도전'

필요한 법률안 80% 연내 국회 제출… 아이돌보미 사업 등 서민 공약은 상반기 우선 추진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의 80%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박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목표를 빠르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5대 국정목표와 함께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동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특히 국정과제 이행에 수반되는 법률안 210건 중 총 167건(79.5%)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석훈 국정조정기획분과 인수위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대해서는 5년간 단계별 추진 계획뿐 아니라 입법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68건이며 상반기 중 41건, 하반기 중 58건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부 이행 계획 중에는 기개부재,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아이돌보미 사업 등 서민 생활과 관련한 공약이 상반기 중 마무리해야 할 시급한 국정과제로 분류됐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유통구조 개선, 골목상권 문제 해결 등 공약도 우선 도입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교사와 경찰 등 대인 업무 종사 공무원 증원, 문화 예산 2% 및 연구개발 예산 확보, 농어촌 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도입 등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기자 grass1@metroseoul.co.kr

김용준(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치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뭉친,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편석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근육마비,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하면피부질환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침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흔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것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마치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사혈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니 대개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다량으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한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액응고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질병,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조 향 날 달 이 한 의 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이 생기고 ...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상 및 지상 가여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한의학박사 허정구 원장

낮고 조용 '합격점'… 불통 논란 '옥에 티'

인수위 오늘 해단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8일간의 활동을 마감하며 22일 해단식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는 역대 인수위보다 열흘가량 늦게 출범했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 마련과 조각 작업 및 청와대 비서진 인선을 마치고 국정과제를 설정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인수위는 점령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조용하고 낮은 인수위를 표방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전의 실무 작업에 충실히 임해왔다.

실제로 인수위는 정권 인수 업무를 시작한 이래 정부 각 부처 관료들을 불러 앉혀 호통치고 명령을 내리던 과거의 인수위와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자칫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밀봉인사'로 인한 불통 논란, '부실 검증'으로 빚어진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옥에 티로 지적됐다. /배동호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아니다"

정홍원 총리후보자 해명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 재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21일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부산지검 근무 당시 서울 집을 놓고, 부산에 집을 샀는데 차액이 생겼다"며 "장인어른이 돈을 모르는 거 같으니 맡겨라 해서 맡겼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재송동으로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상태였으며 장인께서 그쪽으로 가면 값은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산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재송동 땅 매입 이유를 '거주 목적'으로 기재한 데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제가 얘기한 것을 아마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며 "잘못된 것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또 강남 전원주 소재 건물 매입 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지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배동호기자

KOSPI

2/15	2/18	2/19	2/20	2/21
1981.19	1981.91	1985.83	2024.94	2015.22 (-9.42)

KOSDAQ

2/15	2/18	2/19	2/20	2/21
514.58	516.52	522.46	525.65	524.44 (-1.25)

Nikkei (일본)
11309.13 (-159.15)

Hang Seng (홍콩)
22906.67 (-400.74)

Shanghai (중국)
2325.95 (-71.23)

Dow Jones (미국)
13927.54 (-108.13)

EXCHANGE RATE

달러	1084.50
엔(100)	1160.76
유로	1438.48
위안	173.79

대학등록금, 카드 무이자할부된다

신용카드사들이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 9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상생경영 차원인 동시에 새로운 먹거리로 대학등록금 결제 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의 일환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는 올해 1학기 대학등록금 납부철을 맞아 대학등록금을 최장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또는 저렴한 수수료만 부담하고 내도록 했다.

카드사가 단독으로 전액 부담해 진행하는 행사라 최근 대형 가맹점과 비용 분담 문제로 중단된 상시 행사용 무이자 할부와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대학등록금이 고액이다 보니 납부 부담에 크다는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학등록금은 공

90여 대학 최장 6개월 카드업계 1학기 실시

공익 성격이 있어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며 "대학등록금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수는 없어서 무이자 할부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대학은 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 등 90여개교다.

신한카드는 서울대·충북대·강원대 등 7개교에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 충북대와 인동대, 여주대 등 6개교는 '6·10·12개월 슬림 할부'도 제공한다. 6개월 슬림 할부는 1~2회 차만 할부 이자를 고객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10개월 슬림 할부는 1~3회 차 이자만 내면 된다.

하나SK카드는 내달 31일까지 원주대·공주교대·부산대·우송대·방송통신대 등 8개교에 등록금 납부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하나SK카드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는 본인 카드의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개별 한도 신청하려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94조원

한국 30대 브랜드 가치 삼성·현대·기아차 53%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브랜드의 가치가 94조원으로 측정됐다.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인 인터브랜드가 21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브랜드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국내 30대 브랜드의 자산가치는 94조36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터브랜드 일본법인이 지난해 발표한 일본 30대 브랜드 자산가치 128조9583억원의 7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업별 브랜드 가치는 삼성전자가 37조2020억원으로 1위, 현대차가 8조4522억원으로 2위, 기아차가 4조6240억원으로 3위에 올랐다.

지난해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세계 100대 브랜드에 들었던 이들 3사의 브랜드 가치 총액은 국내 30대 브랜드 전체 평가 금액의 53%에 달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생명보험(2조6030억원), 삼성화재해상보험(1조7975억원), 삼성카드(1조1384억원), 삼성물산(1조996억원) 등 5개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1조8723억원), 현대모비스(1조3762억원), 현대카드(1조2232억원), 현대건설(9689억원), 현대백화점(6820억원) 등 7개 범현대가 기업이 30대 브랜드에 포함됐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 SK텔레콤(4조2848억원), 포스코(2조7298억원), KB국민은행(2조6696억원), 삼성생명보험, NHN(2조5382억원), 신한카드(2조2228억원), LG전자(2조2040억원)가 4~10위에 올랐다.

/박상훈기자 zen@

2410만 화소 자랑하는 니콘 D7100 21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모델들이 니콘이미징코리아의 2013년 DSLR 카메라 'D7100'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D7100은 니콘의 DX포맷 최상위 모델로 높은 묘사 성능과 유효 화소수 2410만 화소로 성능이 향상됐다.

/손진영기자 son@

빚덩이 가계… 공포스러운 960조

작년 4분기 23.6조 불어 가계신용 역대 최고치

우리 국민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빚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가계신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만 900조원이 넘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959조4000억원이다. 전 분기보다 23조603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가계신용 잔액 추이

(단위: 조원)

3분기 (2011년)	4분기	1분기 (2012년)	2분기	3분기	4분기
892.5	911.9	911.1	923.9	935.7	959.4

※가계신용 = 가계대출+판매신용 자료/한국은행

기계신용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 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다 금융권 이자를 더하면 가계부채가 된다.

가계대출은 900조6000억원으로,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판매신용도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4분기에만 가계대출이 19조9000억원, 판매신용은 3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예금은행이 467조3000억원으로 3분기보다 7조9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한은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감면 혜택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지성기자

국내 이통사 LTE 품질 B급 일본 누르고 '최고'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4세대 이동통신(LTE) 서비스의 품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12년도 방송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LTE 통화 성공률이 전국에서 97.5% 이상인 'S등급(매우 우수)'으로 평가됐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등급 분류 중 최고 등급인 'S등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쿄·홍콩·프랑크푸르트·스톡홀름·샌프란시스코·뉴욕 등 세계 주요 6개 도시의 B등급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것이다. ITU는 통신품질 등급을 통화 성공률에 따라 S, A, B, C, D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A 등급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찍는 대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국내 출시

미국의 3D 프린터 전문업체 스트라타시스가 21일 한국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3D 프린터는 대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플라스틱과 같은 성형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만든다. 이 기기를 쓰면 시제품을 생산할 때 금형을 제작하지 않아도 되고 제품의 개발 주기와 개발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트라타시스는 지난해 이스라엘 3D 프린터업체 오브젯을 인수, 글로벌 1위가 됐다. 이날 스트라타시스는 소형 3D 프린터 '아이디어' 시리즈와 '디자인' 시리즈, 산업용 대형 부품 제작이 가능한 '프로덕션' 시리즈를 선보였다.

/박상훈기자

600만원짜리 강의 공짜

네이버 TV캐스트에 'TED 채널' 무료오픈·유튜브에 동영상 도전장

최근 네이버 이용자들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18일 베타서비스 중인 TV캐스트 안에 TED 채널을 무료로 오픈했기 때문이다.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 '퍼뜨릴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슬로건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에 관련한 강연을 개최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다.

버락 오바마, 앨 고어, 빌 게이츠 등의 유명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10~20분 동안 강연을 진행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현지에서는 TED 콘퍼런스 참가비가 6000달러(약 600만 원)까지 치솟아 논란이 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네이버가 이처럼 고품격 지식 콘텐츠를 공짜로 선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유튜브의 급성장을 구경만 할 수는 없다는 일종의 경쟁 심리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 1위에 만족할 수 없는 네이버가 확실한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할 경우 모바일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이다.

네이버 TV캐스트는 유튜브와 달리 유명 단체나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만 서비스하고 있다. 즉 개인이 올린 동영상은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검증된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가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에도 개인의 업로드를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네이버 TV캐스트에서 볼 수 있는 콘텐츠는 예능 프로그램과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정철어학원, 방통대, 열정락서 등 다양하다.

구글, MS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네이버에 막혀 국내에서는 유독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TV캐스트를 장착한 네이버가 유튜브 텃밭마저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포르쉐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201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시민들이 포르쉐 바이크를 구경하고 있다. /뉴시스

안성기·이나영·유지태 선뜻 "르노삼성차를 보증합니다"

르노삼성차가 안성기·이나영·유지태의 보증(?)을 받는다.

르노삼성은 최근 고객만족도와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브랜드 캠페인을 선보였다.

지난해 호평받았던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브랜드 캠페인의 후속편이다. 우리나라 대표 배우 안성기·유지태·이나영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르노삼성차를 보증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리론칭 광고를 비롯해 이나영의 'SM3 연비'편, 유지태의 'SM5 편인함'편, 안성기가 등장하는 'SM7 만족감'편, 'QM5'편 등 총 5편의 광고가 순차 방영된다.

이번에 선보인 '2013 보증합니다' 캠페인은 지난해 르노삼성차의 '자기 사람을 사랑할 때' 브랜드 캠페인처럼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제품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이나영·안성기·유지태는 실제 르노삼성차를 직접 운전하고 만족했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보증한다'는 광고 콘셉트에 적극 동참했다고 르노삼성은 전했다.

/박성훈기자 zen@

KT고객들 '행복한 고민' 시작

영화권·50시간 무료통화 요금제별 혜택들 쏟아져

KT가 다음달 29일까지 LTE 620 이상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CGV 영화관 무료 관람권 1매와 동반 1인 할인(6000원으로 관람) 혜택을 제공하는 '와프(WARP) 제안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인 CGV가 영화표 가격을 인상하는 등 평소 영화를 즐겨 보며 데이트를 해오던 연인들에게는 부담이 늘 수밖에 없어 기획됐다.

특히 G650 요금제를 사용하면 olleh 모바일끼리 50시간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어 연인의 경우 100시간 넘는 무료 통화 혜택을 얻는다.

KT는 3월 29일까지 LTE 620 이상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매월 CGV영화관 무료 관람권 1매와 동반 1인 할인(6000원으로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영화 예매는 올레닷컴(www.olleh.com) 영화 예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현장 예매는 요금제 가입 시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주소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인증 바코드를 CGV 영화관 안내데스크에 보여주면 된다.

또 LTE 워프 전 고객 및 동반 1인에게 3월 22~24일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을 3일 내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권을 제공한다. 이 기간 중 매일 스키(3000명), 보드(1000명) 및 스키복(2000명)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혜택도 준비했다.

/박성훈기자

월2회 칼퇴근 하는 울 아빠 현대건설맨

현대건설이 가족 사랑 실천과 직원 상호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소통 강화를 통해 해피컴퍼니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임직원의 복리후생 향상과 가족 사랑 실천을 위해 2011년 6월부터 매달 둘째, 넷째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직장과 가정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이 된 현대건설이 그룹사의 가족 사랑 실천에 동승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건설 임직원은 가정의 날엔 야근, 특근 등을 자제하는 대신 근무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여 일을 처리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함으로써 여유 시간을 확보해 가족과 함께하며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다.

가정의 날을 맞아 가족과 나들이에 나선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강혜식 차장 가족의 모습

또 직원 및 가족에게 쏟는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 임직원과 가족을 배려하는 감성경영의 일환으로 현대건설은 본사와 국내외 현장 임직원의 입학 자녀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보내고 있다.

직원 가족 윤인선씨는 "배움에 대한 의의를 북돋아주는 귀중한 말과 함께 딸아이가 갖고 싶어 했던 선물을 회사에서 보내줘 정말 기뻤으며, 현대건설 가족이라는 긍지와 함께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10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조사 발표한 '한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건설부문 1위에 선정돼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김지성기자

아프로에프지 제8기 장학증서 수여식

공모·학교추천 45명 혜택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국내 소비자금융그룹 아프로파이낸셜그룹(회장 최윤)이 출연한 아프로에프지장학회가 최근 강원도 홍천의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13년도 상반기 워크숍 및 제8기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아프로에프지장학회는 2002년부터 해마다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공개 모집 및 학교 추천을 통해 대학원생 6명, 대학생 25명, 북한동포 학생 7명, 재일동포 학생 7명 등 총 45명을 선발해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중국동포 장학생, 미국동포 장학생, 원이시아콘텐 벤진재경대학교 및 몽골국립대학교의 장학생은 별도로 선발할 예정이다.

최윤 아프로파이낸셜그룹 회장 겸 아프로에프지장학회 이사장은 "장학 사업을 비롯한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하는 공략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metro Mexico

...eba *Harlem shake* ...quieren despedir

metro Chile

Ballenas jorobadas que encantan a los turistas en el sur de Chile

여름휴가철 칠레 '빙하 고래투어' 인기

고래와 물개·빙하 등을 볼 수 있는 아가이네스 지방이 칠레의 이색 여름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남반구인 칠레는 현재 여름이다. 대다수 칠레 휴양객들은 태평양 해변이 있는 곳에서 휴가철을 보낸다. 하지만 거대한 혹등고래와 빙하를 보려는 관광객이 최근 급증하면서 칠레 최남단의 아가이네스 지방이 북적이고 있다. 다니엘 네르도 칠레 관광청장은 "해외에서 자연을 탐험하고 싶은 관광객들에게 아가이네스의 독특한 풍광과 고래관광 체험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metro France

low cost sur les rails

파리~마르세유 저가 TGV 달린다

프랑스 기차여행 비용이 다소 저렴해질 전망이다. 메트로 파리는 프랑스철도공사가 저가 TGV(프랑스 고속열차) 운행을 시작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파리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와 몽펠리에를 연결하는 위고 노선에 도입되는 저가 TGV의 최저가는 편도 10유로(약 1만4000원)다. 가장 비싼 좌석도 85유로(약 12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성인과 함께 탑승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는 5유로(약 70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저가 TGV 티켓은 인터넷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야동 빰친 '할렘 셰이크' 논란

멕시코 명문대생 1200여명 성행위 연상·반나체 춤판 … 학부모들 "교장 물러나라"

멕시코에서 '할렘 셰이크' 막춤 동영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15일 멕시코의 명문 대학교인 산업기술교육학교에서 학생 1200여 명이 참여한 '할렘 셰이크' 춤판이 벌어졌다. 세계 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할렘 셰이크'는 음악에 맞춰 여럿이 괴상한 춤을 추는 댄스 퍼포먼스다.

산업기술교육학교 학생들의 '할렘 셰이크'는 미국 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7만8000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학교 졸업생인 도리안 로드리게스는 "친구가 할렘 셰이크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재밌어 보였다"며 "친구들과 함께 학교 교실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벤트 기획 의도를 밝혔다. 그는 "계획을 세우다 보니 일이 점점 커져서 결국 체육관까지 빌려 비디오를 찍게 됐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게스는 먼저 학교에 체육관 대관 신청을 한 뒤 페이스북에서 참가자를 모집했다. 페이스북 이벤트 기능을 통해 친구들을 할렘 셰이크에 초대했고, 초대를 받은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행사에 초대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누군가 실수로 교장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동영상을 접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장이 학생들의 저질 퍼포먼스를 허락했다"며 교장의 사임을 요구한 것.

이번 동영상에는 학생들의 코믹 막춤은 물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남학생의 반나체 춤 등 도발적인 퍼포먼스도 담겨 있다.

한 학부모는 "체육관 이름이기도 한 이 학교의 설립자 호르헤 마투테 레무스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며 "마투테 레무스가 이 장면을 보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이벤트 기획자들은 교장은 이 동영상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드리게스는 "교장선생님은 할렘 셰이크와는 무관하며 한 학생이 페이스북 이벤트 참가 버튼을 무심코 눌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는 재미로 놀았을 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며 "다른 대학의 학생들도 같은 비디오를 찍었고 이에 대해 비난받지 않았다. 동영상 때문에 학교 평판이 떨어질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가브리엘 오리우엘라 기자
정리=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metro Guatemala

...mala celebra ho... de la Marimba

아이폰 벨소리 '마림바'는 과테말라 악기

하루에도 수십 번 들을 수 있는 애플 아이폰의 기본 벨소리인 '마림바'의 감미로운 소리가 중남미 과테말라의 전통악기 '마림바'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메트로 과테말라는 마림바를 통해 전 세계에 과테말라를 알리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테말라 정부는 물론 언론·기관·학교, 사회단체 등도 마림바 알리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설명이다.

피부 라디오는 매일 마림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파부 마림바'를 방송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고 있는 잉헨 마리오 피게오라는 "마림바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악기"라며 "마림바 소리에는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했다.

산카를로스대학 부속의 박물관도 매년 6월과 9월 마림바 전시회를 열고 있다. 또 마림바의 기원과 특징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콘서트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정규 음악 시간에 마림바를 가르치는 학교도 등장했다. 덕분에 학생들이 주축인 마림바 연주단도 늘어나고 있다. 20일에는 퀘살테낭고에서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두 개의 초등학교 마리아노 로셀 이 아레아노 데 산 후안 코마라파의 학생들이 마림바 협주회를 열어 큰 호응을 받았다.

과테말라에서는 마림바가 애국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968년부터는 국가 연주에도 마림바가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다.

/정리=조선미기자

<공공기관>

고졸신입 4년 지나면 대졸 초임연봉

채용땐 대졸임금의 70% 줘야

앞으로 공공기관 고졸 4년차 직원의 연봉이 대졸 초임과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열린 '공공기관 고졸채용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졸 채용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 매뉴얼은 295곳 공공기관의 채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고졸 신입사원의 보수를 대졸 사원 초임의 최소 70% 이상을 줘야 한다. 입사 4년 후엔 대졸 초임 연봉과 같은 수준을 지급하고 신분 또한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그동안 고졸 취업자는 임금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어 대졸자와 똑같은 일을 해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

아울러 고졸 별도 직군이 신설돼 고졸 취업자는 이 직군에서 경력을 쌓아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다. 기존엔 대졸·고졸 단일 직군은 고졸자의 승진을 제한하는 '유리천장'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고졸 적합 직무 발굴과 취업 후 진학 시스템 지원도 강화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졸이란 이유로 부당하게 평가받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며 "고졸 채용을 활성화해 2016년까지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40%를 고졸자로 뽑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윤회기자 unique@

이통사들 스미싱 사기결제 차단 나선다

SKT 첫 과금청구 취소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인 스미싱(smishing) 피해가 사회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이동통신사 중 처음으로 SK텔레콤이 스미싱에 따른 불법적인 결제 요청을 취소해주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21일 SK텔레콤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면 인터넷전자결제업체(PG)들과 협의해 휴대전화 과금 청구를 유보하거나 취소하는 고객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다. 보이스피싱이 피해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것과 달리 스미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청구서가 온 뒤에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SK텔레콤은 PG사나 온라인게임업체 등이 피해 예방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스미싱 피해로 추정되는 과금은 아예 통신사에 청구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PG사, 게임사에 적극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며 "만약 PG사의 협조나 대책 마련이 미흡하면 이동사 자원에서 강제적으로 과금 청구를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lucyhan@

공중요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에서 시민이 공중요가(Aerial Yoga)를 체험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스포츠레저 종합 전시회인 이번 행사는 24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교육비 지원 피싱문자 극성 앱 확인 누르면 30만원 빠져나가

'교육비 지원 신청을 쉽게 하도록 돕는다'는 피싱 문자와 악성 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신청할 수 없는 만큼 학부모·학생은 이런 문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발신자를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속인 "[교육비] / http://www.***.*** 이월 청구 금액 44만8000원" 같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악성 앱은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원클릭 앱로 쉽게 하세요! tnour.es/gv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이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앱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앱을 실행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결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비 지원 신청은 모바일 기기로는 받지 않고 있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로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면 된다. /박선옥기자

모유 먹은 아이들 아토피 위험 낮고 똑똑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모 1700여 명과 이들이 낳은 생후 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후 12개월까지 모유만 먹고 자란 아이의 평균 인지 점수는 103.8점으로 분유만 먹은 영아 평균인 97.1점보다 6.7점 높았다. 또 모유를 먹은 아이는 아토피 피부염에도 잘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모의 혈중 납 농도가 낮을수록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싱겁게 먹고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면 혈중 중금속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장유미기자

"첫 취업했다… 그런데 1년 계약직이다"

4년새 60% 껑충

극심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청년층이 크게 늘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애 첫 직장을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청년(15~29세)들이 최근 4년간 6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잡은 청년은 80만2000명에 달했다. 2008년 50만5000명에 비하면 59.0% 늘어난 셈이다.

반면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취업한 청년은 같은 기간 28만7000명에서 11만6000명으로 59.6% 급감했다.

별도의 계약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 등에 취업한 청년은 285만2000명에서 252만 명으로 11.6% 줄었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과 증가율이 더 높았다.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인 여성 청년의 수는 2008년 28만8000명에서 2012년 46만6000명으로 61.9%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같은 조건의 취업자가 21만7000명에서 33만7000명으로 55.1% 증가했다. /배동호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75> 그림 박상철

"박찬욱 감독 복잡한 캐릭터에 끌렸다"

'스토커' 바시코브스카 첫 내한 "한국, 초현실적 느낌"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실력파 여배우 미아 바시코브스카가 박찬욱 감독과 손잡은 '스토커'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올해 스물네 살로 팀 버튼 감독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구스 반 산트 감독의 '레스트리스' 등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바시코브스카는 21일 서울 남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서 "박 감독이 어느 감독들과 달리 촬영 시작전 모든 장면의 이미지를 스토리보드로 만들어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며 "똑똑하고 섬세하게 창조해낸 시각적 이미지가 스토리와 잘 어울린다는 게 박 감독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함께 일한 소감을 공개했다.

28일 개봉될 이번 작품에서 아버지를 사고로 잃은 뒤 갑자기 나타난 삼촌 찰리(매튜 구드)로 인해 내재된 본성을 드러내는 주인공 소녀 인디아를 열연한 그는 "박 감독이 그려내는 매우 복잡 미묘한 캐릭터란 점에서 이 영화에 끌렸다"면서 "샤워실 전신 노출과 피아노를 치며 오르가슴을 느끼는 모습 등 만만치 않은 장면들이 많아 촬영 전 아주 긴장됐지만, 막상 촬영에 들어가서는 스태프의 도움으로 편안히 연기할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첫 한국 나들이의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초현실적인 느낌이 든다"며 "갤러리와 전통적인 장소를 가고 싶다. 또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동석한 박 감독은 "미아는 과시하듯이 연기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래의 배우들과 달리 어떤 장면에선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돋보인다"며 "사진작가인 양친에게 영향을 받아 사진 실력도 무척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바시코브스카

또띠

by 정연식 <600>삶의 더께

wind8686@naver.com

비밀 연애, 그 아픔에 대하여

film review

/이혜린 냄겨 칼럼니스트(ishopeis.jpwer.com)

■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남녀의 연애를 박밀스럽게 엿보는 재미가 있다. 남자 주인공은 대학교수이거나 영화감독으로 자기애 혹은 자기중심적인 연애관을 가지고 있다. 여자 주인공은 그런 남자를 동경하거나 존경하지만 은근히 자기만의 세계관이 굳건한 경우가 많다.

28일 개봉될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의 연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 대학생인 해원(정은채)은 선생인 유부남 성준(이선균)과 비밀 연애를 한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의 사선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 이별했지만, 캐나다 이민을 떠나는 어머니를 만난 해원이 먼저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이들의 연애도 이전과 비슷한 이유로 그리 편치 못하다.

전작들과 비슷한 연애담이지만 이야기 구조가 훨씬 심플하다. 줄거리는 해원을 중심으로 흐르고, 주인공들이 가진 기억의 왜곡도 덜하다. 주변 인물들도 많지 않다. 다만 잠을 자는 해원 덕분에 꿈과 현실을 구분해야 하는 수고는 있지만 그리 어렵진 않다.

그렇다면 홍 감독은 이번 영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부도덕한 관계로 검눈질당하는 남녀는 서로 힘들다며 헤어지자고 말한다. 그러나 이내 "너 없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예쁘냐"라며 서로를 안는다. 그러곤 또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언행 탓에 싸움을 되풀이한다.

해원은 서촌을 배회하다 미국에서 온 교수 중원을 만나는데, 또 다른 성준으로 짐작되는 이 사람 또한 해원이 예쁘다며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반복되는 연애의 습관과 아픔. 아마도 홍 감독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28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남자, 1인당 기준)

30세	40세	50세
월11,000원	월18,160원	월36,220원

(남자, 1인당 기준)

치매 간병비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중증치매간병비 5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부가서비스:간병 도우미 1회 3만원 (연 5회)
치매담보 가입자가 중증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 사용하는 경우

7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지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암 진단비 2천만원을 진단 즉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IV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암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7대 질병 수술비 5백만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644-9265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치매간병비(중증치매)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70세	6,270		50세	1,110	2,950	190	90
			60세	6,010	14,270	320	190
			70세	35,040	71,220	500	370

• 가입연령 50~70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보험료는 상품 1구좌 기준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 절차없이 최대 90세까지 (7대 질병 수술비는 80세까지) 연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9

월보험료(1인당,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5세	6,270		30세	2,380	7,030	1,200	520	750	270	520	250
			40세	6,780	17,570	2,730	990	1,390	530	1,000	420
			50세	17,180	21,390	9,620	6,410	2,260	980	1,510	930

• 가입연령 15~65세 • 납입기간 전기납 • 보험료는 상품 1구좌 기준 • 이 보험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및 해지환급금이 없음 •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www.chartis.co.kr

CHARTIS

metro entertainment

눈치꽝 몽상가 요셉 캐릭터와 참 많이 닮았죠

뮤지컬로 영역 넓힌 '부활' 보컬 정동하

록밴드 '부활'의 보컬 정동하(33)가 뮤지컬 배우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샤롯데씨어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서 주인공 요셉을 맡은 그는 다양한 표정 연기와 율동은 물론 특유의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며 여심을 사로잡고 있다. "이 작품에 '올인' 할 거에요"라며 눈을 반짝이는 그에게서 욕심 많은 뮤지션의 향기가 느껴졌다.

 # 요셉 어메이징 '폭풍 탐구'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각색한 '요셉 어메이징'은 '오페라의 유령' '캣츠' 등을 제작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라이온 킹' '미녀와 야수' 등 다수의 디즈니 뮤지컬을 작사한 팀 라이스가 공동 작업한 첫 작품이다.

야곱의 12명 아들 중 요셉은 총명하고 꿈풀이에 밝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이를 시기한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요셉은 이집트에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해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구원한다.

기본적인 스토리 전개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로 변신하는 등 작품 전체적으로 위트와 유머가 넘친다. 송스루 형식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흐르고 300벌이 넘는 의상과 화려한 무대로 관객의 눈도 즐겁게 한다.

정동하가 송창의, 조성모, 아이돌과 함께 요셉을 연기하고, 김선경, 최정원, 리사가 시청자로 등장한다. 최근 연인으로 발전한 송창의와 리사는 이번 작품을 함께하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

"요셉이 저와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몽상가이면서 눈치가 없죠. 그렇지만 삶은 긍정적이죠. 극 말미에 요셉이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함께 포옹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울컥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봐야 할 가족 뮤지컬이라 생각해요."

엄청난 분량의 대사·연기 내겐 긴장과 재미의 연속

#작품 통한 계기, 그리고 도전

이번 뮤지컬 외출은 타이밍이 절묘했다. 지난해 KBS2 '불후의 명곡' 출연으로 화려한 날개를 편 그는 출연 횟수가 점차 늘어날수록 무대에 선다는 기쁨보다 시청자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졌다. "이제 때가 [illegible]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든 즈음 부활의 전 멤버였던 김재희가 함께 배보자는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였다.

"언론에서는 뮤지컬에 올인하기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라요. 새로운 뭔가를 갈구하는 시기였죠. 최근 마지막 무대를 녹화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임재범 선배의 '비상'을 불렀어요. 어려웠던 시절 즐겨 불렀던 노래죠. '불후의 명곡'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대사를 외워야 했지만 노래 가사라고 생각하니 어렵지 않았고, 노래할 때 감정 전달을 잘하려고 배웠던 연기도 많은 도움이 됐다. 요셉의 율동은 다행히 심하지 않았다.

"전에 '틀리플리'에 출연했는데 그땐 대사가 거의 없었죠. 실질적인 뮤지컬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죠. 긴장되면서 재미있어요."

5월쯤 솔로앨범 낼 계획 예능? 불러만주시면 콜!

#앞으로 활동계획과 목표는

'부활'은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김태원(리더, 기타), 채제민(드럼), 서재혁(베이스)은 친형들과 같은 가족이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자신을 빼고 보컬 박완규와 함께 콜라보 작업을 할 때도 서운하지 않았다. 그는 5월쯤 김태원의 동의를 얻어 솔로 앨범을 낼 계획이다. 16~17일 이화여대 삼성홀에서 콘서트를 여는 등 두 어는 계속 이어진다.

"솔로 앨범을 만든다고 해서 독립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만의 스타일로 해보고 싶은 노래가 있었죠. 싱글로 만들어 많은 곡을 수록하진 않을 거에요. 바쁘게 일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요즘 느끼고 있죠. 태원이 형처럼 저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어요. 잘할 자신도 있고요. 불러주세요.(하하하)"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은 4월 11일까지 이어진다. 공연 문의 070)4488-8522

/김민준기자 mikim@metroseoul.co.kr
사진/ 서울 라운드테이블 디자이/임상혁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에서 요셉 역을 맡은 정동하가 극 중 아버지 야곱에게 색동옷을 선물 받고 기뻐하고 있다.

star bag

'러브코스터'로 중국 진출

가수 **김태우**가 국내 컴백과 함께 중국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공개한 미니앨범 'T-러브'에 중국 가수 쑨난과 '미인도'를 리메이크한 '러브코스터'를 실으며 중국 활동의 발판을 마련했다. 쑨난은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를 리메이크해 큰 인기를 얻었고, 김태우의 히트곡 '사랑비'를 리메이크한 '마이 서머 레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7kg 감량' 숨은 비주얼' 등극

레인보우 **조현영**이 팀 내 숨은 비주얼 멤버로 등극했다.

그는 최근 컴백을 준비하며 7kg을 감량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언예 게시판에는 '조현영 무보정 몸매 직찍'과 '안무연습 영상'이라는 이름의 사진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사진과 영상에서 조현영은 보정을 거치지 않은 매끈한 라인과 탄탄한 복근으로 눈길을 끌었다.

다음주 열애설 입장 발표

배우 **배두나**가 다음주 중 열애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소속사 HMG엔터테인먼트는 21일 "다음주 배두나가 귀국하면 입장을 정리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두나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함께 출연한 짐 스터게스와 열애설에 휩싸였으며, 현재 차기작 검토를 위해 미국 체류 중이다.

'리블루' 대만 차트 싹쓸이

씨엔블루가 대만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달 국내에 출시된 미니앨범 '리블루'가 현지에 공식 발매되기도 전에 3개 차트 정상을 싹쓸이했다. 타이틀곡 '아임 쏘리'는 음악 사이트 마이뮤직의 모바일 벨소리 2월 셋째 주 주간차트에서 동양 음악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오뮤직차트의 음원, 음반 부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아이유 '서영이' 후속 '이순신' 주인공 맡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 호평

'국민 드라마' 바통 잇는다

'국민 여동생' 아이유가 3연속 '국민 드라마' 탄생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다음달 9일 첫 방송될 KBS2 새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의 주인공을 맡은 아이유는 최근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하면서 숨은 연기 열정을 발산하고 있다. 올겨울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일에는 광화문에서 맹추위를 이기며 연기에 몰입하는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다.

촬영이 시작되자 아이유는 곧바로 감정에 몰입해 슬픈 표정으로 커다란 눈망울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았다. 풍부한 감수성과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제작진을 만족시켰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다리를 드러낸 얇은 옷차림으로 연기에 집중했고, 높은 몰입도를 보이며 NG 없이 촬영을 마쳐 스태프의 찬사를 받았다.

새침하고 발랄한 여동생 이미지로 보여줬던 아이유는 이 같은 다양한 감정 연기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날 촬영에서도 단아한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성숙한 매력을 풍겼다. 올해 성인이 된 아이유는 새 음반 재킷 등에 한층 성숙한 여성미를 드러낸 바 있어, 이번 드라마에서 보여줄 변화에 기대를 모은다.

KBS 주말극은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최고 시청률 45.3%를 기록했고, 현재 방송 중인 '내 딸 서영이'가 46.0%를 기록하는 등 연이어 국민 드라마를 내놓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엔 아이유가 후속작의 타이틀롤을 맡아 김남주·이보영이 이어온 3연속 흥행을 이끌지 관심사다.

아이유 소속사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년 전 '드림하이'에 출연한 이후로 줄곧 연기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이어왔다"며 "가수로서 그랬듯이 워낙 강단 있고 당대한 성격이라 연기자로도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사 에이스토리 관계자는 "아이유의 연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연기력도, 촬영에 임하는 자세도 기대 이상이라 시청률 50%도 꿈만은 아닐 것 같다"고 전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노희경 작가 '시청률 한풀이'

'그 겨울' 수목극 1위 올라

번번이 시청률 복이 없던 노희경표 드라마가 이번엔 통했다.

노 작가가 집필한 SBS 수목극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시청률이 방영 4회 만인 20일 13.4%(닐슨코리아)를 기록해 동시간대 방영된 드라마 중 1위에 올랐다. MBC '7급 공무원'은 12.5%, KBS2 '아이리스 2'는 10.8%였다.

그동안 '거짓말' '바보 같은 사랑' '굿바이 솔로' '그들이 사는 세상' 등 노 작가가 선보인 드라마는 마니아들로부터는 뜨거운 지지를 받았지만 정작 시청률은 한 자리수로 낮았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의미가 크다.

특히 170억원의 제작비를 쏟아부은 '아이리스2', 천성일 작가와 주원·최강희가 참여한 '7급 공무원' 등 대작들과의 승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너욱 뜻깊다.

이 작품은 시각장애를 가진 대기업 상속녀 오영(송혜교)과 오빠라고 속이고 접근한 오수(조인성)가 만나 희망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문근영·김주혁 주연의 영화 '사랑따윈 필요없어'로도 잘 알려진 일본 드라마를 각색했다.

이번 성과는 노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원작의 대중성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연배우 조인성·송혜교의 호연, 김규태 감독의 아름다운 영상미는 주인공들의 감정선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SBS가 '변칙 편성'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1~2회를 연속으로 내보내는 등 힘을 실어준 것도 높은 시청률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진환기자 tak0427@

"걸어서…업혀서…" 박시후 성폭행 혐의 사건 CCTV 분석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의 사건에 CCTV가 중요한 단서로 떠올랐다.

박시후와 고소인인 연예인 지망생 A(22)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포장마차와 박시후의 집 주차장 CCTV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혐의를 판가름할 쟁점은 관계의 강제성이다. A씨는 "술이 취해 깨어나 보니 박시후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박시후는 "남녀로서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가 포장마차 CCTV에선 자신의 힘으로 계단을 걸어서 나올 정도의 상태였으나, 주차장 CCTV에선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박시후의 후배 연기자 B의 등에 업혀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의 측근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A와 B가 술을 마신 다음날 오전 헤어진 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런 인사를 전할 수 없다"고 밝힘에 따라 CCTV만으로도 혐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A씨와 박시후의 행적을 조사해 시간을 수시해나가는 한편 박시후를 소환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채진환기자

HOT PHOTO

잠므파탈 윤은혜 윤은혜가 도발적인 옴므파탈로 변신했다. 하와이에서 촬영한 화보에서 그는 매혹 취의를 입지 않은 듯한 착각이 드는 아찔한 초미니 숏 차림으로 빼어난 각선미를 드러냈다. 그는 요즘 편의 심정으로 눈여겨보는 후배 여성 그룹으로 씨스타를 꼽으며 "내 곡의 조합이 훌륭한데 씨스타B 들의 조합도 좋다. 나올 때 들떠지기 됐더라"고 칭찬했다.

▶ 씨스타와 촬영해를 만한 각선미네요.

'가시꽃' 거침없는 인기

시청률 2.1% '가파른 상승' 종편 대박 드라마 탄생예고

JTBC 일일연속극 '가시꽃'이 또 하나의 종편 대박 드라마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방송된 '가시꽃'은 2.102%(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 가구)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4일 0.6%대 시청률로 출발했던 이 드라마는 12일 1%를 넘어섰고, 회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승폭은 케이블과 방송 드라마로는 이례적인 것으로 케이블 tvN의 '노란 복수초'가 2%대에 도달한 기간보다 더 단축된 기록이다.

특히 세미(장신영·사진)가 제니퍼란 이름으로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혁민(강경준) 등 자신의 원수들과 대면하게 되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는 세미의 아버지 전씨(강신일)와 어머니 홍씨(김청)가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용의자였던 혁민은 서 형사(김영배)·강 회장(김병춘)·박 의원(안석

환)의 검은 거래로 혐의를 벗는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 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세미를 백춘(이정민)이 성추행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세미의 복수에 대한 근거들이 겹겹이 [illegible] 세미의 죽음을 위장하고 미국으로 보내 제니퍼로 변신시키는 과정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탈락 위기' 악동뮤지션 무대밖선 신기록 행진

SBS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2'에 출연 중인 '천재 남매' 악동뮤지션이 탈락 위기에 놓였음에도 무대 밖에선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홍보사 3HW에 따르면 이들이 17일 열린 첫 번째 생방송 무대에서 선보인 자작곡 '라면인건가'의 무대 영상이 100만 뷰를 달성했다. 이울러 이번 곡을 포함해 '다리꼬지마' '매력있어' 등 지금까지 선보인 자작곡의 각종 무대 영상이 총 12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찬혁(17)·이수현(14) 남매로 이뤄진 악동뮤지션은 앞서 '다리꼬지마' '매력있어' '에 에어' '라면인건가'로 3연속 음원차트 1위도 석권한 바 있다. 인기에 힘입어 통신사 광고모델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첫 생방송 무대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아 기창력의 신 앤드류 최의 선전에 밀려 탈락 후보에 선정됐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나 심사위원의 와일드카드 사용 여부에 따라 24일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란희기자

하연수 '몬스타'서 용준형과 입맞춘다

엠넷 뮤직드라마 '몬스타'에서 용준형과 호흡을 맞출 여주인공에 하연수(사진)가 발탁됐다.

하연수는 극중 뉴질랜드에서 전학 온 고등학생 민세이 역을 맡았다. 학교에도 공부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노래를 부를 때만 행복해지는 소녀로, 아이돌 스타 윤설찬(용준형)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연출을 맡은 김원석 감독은 "연기와 노래가 모두 가능한 아이돌 가수와 연기자를 중심으로 오디션을 진행하던 중 하연수에게 신선하고 유니크한 매력을 느꼈다"며 캐스팅 배경을 밝혔다.

엠넷 신형관 상무는 "김원석 감독은 성균관 스캔들로 송중기·유아인·박유천을 세상에 알린 발굴의 귀재"라면서 "그가 직접 선택한 하연수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몬스타'는 상처받은 10대들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는 과정을 담은 12부작 뮤직드라마로 4월 초 첫 방송된다. /경보영기자 kwon@

글로벌뷔페 5분만에 뚝딱

멕시코 브리또·중국 딤섬… 각국 전통음식 인스턴트로

요즘 식품업계에 '글로벌 미식기'가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통계청이 올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갈 '7대 뉴 틀루슈머(새로운 시장의 소비자)' 중 하나로 글로벌 미식기를 꼽으면서 업계의 관심이 몰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부터 식품업체들은 까다로운 이들의 입맛을 잡기 위한 글로벌 이색 메뉴를 쏟아내는 중이다. 돈 이서 데우면 되는 식의 간편식품 형태가 많아 맛보기가 수월하다.

멕시코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브리또 또한 전자레인지에 40초 데우면 바로 먹을 수 있다. 브리또는 통가루 반죽을 구운 얇은 토르티야 위에 밥과 고기, 야채 등 각종 재료를 넣어 먹는 음식. 최근 풀무원은 브리또를 간식처럼 먹을 수 있게 만든 '올바른 브리또'를 출시했다. 또한 삿포로 우동(일본), 북경식 짜장(중국), 페스트 스파게티(이탈리아) 등 각 나라의 면 요리를 담은 냉장면 '맛있는 세계의 건강면' 시리즈 제품도 내놓고 있다.

3000년 역사를 지닌 딤섬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 여행지에서 인기를 얻은 음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딤섬 전문점들이 크게 늘었다. 찾는 이들이 많자 CJ제일제당 크레시안은 중식 레스토랑인 차이나 팩토리와 협업해 중국 정통 딤섬의 맛을 재현한 '딤섬 시리즈' 4종을 출시했다.

호빵처럼 폭신한 피에 고기와 생야채로 속을 채운 '빠오즈' 부터 돼지고기와 야채가 사골육수와 어우러진 '샤오롱빠오', 쫄깃한 만두피에 생새우가 통째로 들어간 '하가우' 등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베트남의 쌀국수도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삼양사의 큐원 비다맨 '쌀국수'는 뜨거운 물을 붓고 4분만 기다리면 완성되는 컵면 형태의 제품. 매운맛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얼큰한 맛의 제품도 내놨다.

일본과 중국에서 즐겨 먹던 라유 소스 또한 국내 소비자들과 만났다. 대상 청정원이 내놓은 '따뜻한 밥엔 라유'는 식물성 기름에 땅콩과 마늘 등을 넣은 액상 형태로 밥에 뿌려 먹거나 샐러드 등에 활용하면 된다.

/정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국내 첫 유기농라면 아이쿱생협서 출시

아이쿱생협이 국내 최초로 유기농 인증 라면인 '자연드림 오가닉라면'을 출시하고 21일 자연드림 광진점 매장에서 우리밀 캐릭터 '쫄쫄이'와 함께 이웃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오가닉라면은 면과 스프의 원재료 95% 이상을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화학첨가물을 넣지 않았다. 가격은 1550원.

더 러블리한 '다코타 백'

제이에스티나 2013 봄·여름 핸드백 신상품 공개

패션 잡화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2013 봄·여름 핸드백 컬렉션의 전 라인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인생에 단 한번(Once in your lifetime)'이란 테마로 캔디 핑크, 올리브 그린, 시트러스 옐로 등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스러운 색상을 주로 사용했다.

제이에스티나의 대표 라인인 '티아라'는 올봄 투톤 컬러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할리우드 스타 자매 다코타 패닝과 엘르 패닝을 모티브로 한 '노리티 라인'과 '스플래시 라인'도 함께 선보였다.

레드·바이올렛 등 비비드한 색감이 매력적인 노리티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다코타 백'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엘르백'으로 불리는 스플래시는 핫 핑크와 올리브 그린의 은은한 색감이 돋보인다.

'이지 라인'은 자연스러운 디자인에 퀼트과 엠보 소가죽을 사용했으며 탈부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토트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김남주 가방으로 유명세를 탄 '미라리스'는 골드 티아라 참이 포인트다. 제이에스티나의 2013 SS 컬렉션 신제품은 전국 제이에스티나 핸드백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80)998-0077 /박지원기자

'스칼렛 레드' 입은 롯데리아, 세계인 홀린다

롯데리아가 21일 세계적인 디자인 기업 IHP와 손잡고 세계 시장을 공략할 신규 인테리어 매장을 공개했다.

매장은 열정과 강함을 상징하는 '스칼렛'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롯데리아의 이미지를 전달했다. 또 상단 메뉴판을 디지털 LCD로 바꿔 주목도를 높이고, 유니폼과 제품 패키지를 일치시켜 소비자들이 세계 어느 매장을 방문해도 통일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봄 '여신피부의 필수품' 득템 기회

더페이스샵 다음달 5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오늘(22일)부터 12일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5일까지 더페이스샵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20~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디기오는 봄철 사용하기 좋은 미백 라인 '스밈 광채 보습' 5종 및 자외선차단제, 클렌징 라인 전 제품에 50%라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이 기간 미백 기능성 제품 '스밈 광채 보습 에센스'는 1만603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차별화된 발효 성분과 효능을 제공, 단 한 병 사용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같은 라인으로는 "스밈 발효 원액 에센스"(주름 개선), "스밈 모공 피니쉬 에센스"(모공관리) 등이 있다.

스밈 광채 보습 에센스는 세계 4대 장수마을 중 하나인 코카서스 지방의 전통 발효유인 케피어(티벳버섯) 성분을 활용했다. 특히 은은한 빛을 내는 윤기 캡슐이 바르자마자 피부에 매끄럽게 퍼지며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 빛이 차오르는 듯한 '수분광 피부'를 만들어준다.

또한 파라벤, 벤조페논, 인공 향, 유기색소, 동물성 원료를 넣지 않아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0년부터 (사)희망의 망고나무와 협약하고 아프리카 난민에 망고나무를 심어주는 사회공헌활동 '희망고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행사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KT&G·남성지 맥심 협업 '임팩트'해진 담배 디자인

KT&G가 세계적인 남성잡지 맥심(Maxim)과 협업한 '더원 임팩트 맥심에디션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은색과 붉은색을 사용한 강렬한 디자인을 통해 진한 맛을 내는 제품의 특성을 강조했다.

가격은 기존과 같은 갑당 2500원. 약 한 달간 100만 갑 한정 판매한다.

경기 직전 공 바꾸자고!

쿠바 황당 요구에 경기 취소

NC 다이노스와 쿠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간의 연습경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됐다.

21일 오후 3시 대만 도류시 도류구장에서 NC와 쿠바 대표팀 간의 연습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쿠바 측이 갑자기 시합 공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경기를 취소했다.

NC 관계자는 "대만에 오기 전 쿠바와 시합 공을 따로 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NC는 NC가 쓰던 공으로, 쿠바는 쿠바가 쓰던 공으로 경기를 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구장에 도착하자 쿠바 측에서 갑자기 브렛 어라는 브랜드의 공을 갖고 와 이 공으로 통일해서 쓰자고 요구했다. 그 공은 실밥이 두껍고 넓어서 투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현준기자

메시 묶이자 바르셀로나 침몰

"공이 안 와도 너~무 안 와" 바르셀로나 골잡이 리오넬 메시가 21일 AC밀란과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플레이가 제대로 안 풀리자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AP 뉴시스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AC밀란에 0-2 패

AC밀란이 골잡이 리오넬 메시의 발을 꽁꽁 묶어 거함 바르셀로나를 격파했다.

AC밀란은 21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린 2012~201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12분 케빈 프린스 보아텡과 후반 35분 설리 문타리의 연속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지난해 8강전에서 바르셀로나에 덜미를 잡혔던 AC밀란은 안방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며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AC밀란은 한 박자 빠른 수비로 메시에게 가는 패스 길목을 차단했다. 전반 내내 메시는 볼을 거의 잡아보지 못했고, 후반 들어 그라운드 중앙까지 내려와 직접 볼을 드리블하며 공격 활로를 모색했지만 2~3명이 따라 붙은 상대 수비벽을 뚫지 못했다. 90분 동안 메시가 때린 슛은 프리킥을 포함해 2회뿐이었고,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메시를 꽁꽁 묶은 AC밀란은 역습과 측면 돌파로 바르셀로나를 공략했다. 결국 후반 12분 보아텡은 프리킥 뒤 이어진 혼전 상황에서 자신의 발 앞으로 굴러온 볼을 재빠르게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 골대를 갈랐다. 이어 종료 10분 전 문타리가 쐐기골을 넣어 승부를 갈랐다.

한편 갈라타사라이(터키)는 샬케04(독일)와의 1차전 홈경기에서 전반 12분 부락 일마즈의 선제골로 앞서가다 전반 종료 직전 저메인 존스에게 동점골을 내줘 1-1로 비겼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함부르크와 1년 계약 연장"

손흥민 에이전트 "여름 이적 가능성도"

함부르크의 해결사 손흥민(21·사진)이 소속팀과 계약을 1년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의 에이전트인 티스 블리마이스터는 21일 영국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등 여러 빅 클럽들로부터 많은 오퍼가 있지만 함부르크와 계약을 1년 연장했다"며 "그렇다고 2015년 6월까지 함부르크에서 무조건 뛰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옮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 구단은 맨유와 첼시뿐만 아니라 토트넘, 리버풀, 이탈리아의 인터 밀란까지 가세한 상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함부르크의 구미에 맞는 이적료만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팀을 옮길 수도 있다.

프랑크 아르네센 함부르크 단장은 "재계약 성공에 매우 낙관적"이라며 손흥민과 계약 연장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

한편 지역신문인 함부르거 모르겐포스트는 "함부르크가 손흥민을 잡으려면 1500만 유로(약 215억원)는 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선준기자

컵대회 우승 기성용에 달렸다

스완지시티 키 플레이어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잉글랜드 컵대회 결승에 진출한 스완지시티가 우승을 위한 '키 플레이어'로 기성용(사진)을 꼽았다.

스완지시티는 21일 구단 홈페이지에 "기성용의 다양한 경험이 캐피털원 리그컵 대회 우승을 얻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성용은 잉글랜드에 진출하기 전 스코틀랜드와 한국에서 우승을 경험한 바 있다. 2011년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FA컵 우승을 경험했고, 2006년 FC서울에서도 컵 대회 우승을 맛봤다.

스완지시티는 25일 오전 1시 '축구의 성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브래드퍼드시티를 상대로 결승전을 치른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고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2 Come in, please. 부탁과 명령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n.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모렸습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어 다음 대화를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A Let's begin the meeting now. 문을 닫아주세요.
B Fine.
A 이 차트가 이해가 되나요?
B Yes. I understand the chart very well.

정답 Close the door, please. / Do you understand this chart?

생생영어팁

▶ What's the magic word? — Please.
마법의 주문이 뭐지? — Please요.

누구에게 뭔가를 시키거나 부탁할 때 빼져서는 안 되는 말이 please입니다. 그런데 종종 원어민들조차도 이것을 빼뜨릴 때가 있죠. 그러면 please를 빼뜨렸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What's the magic word?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Please를 마법의 단어라고 부르는 것은 뭔가 부탁을 하거나 시키면서 이 말만 붙이면 상대방이 다 들어준다는(그만큼 공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뜻에서 비롯되었답니다. 보통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성인들 사이에서도 농담식으로 이런 말을 주고 받기도 합니다.

TOEIC ▶ ETS TOEIC Starter Reading

토익에서는 같은 의미를 여러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익혀 두세요.

get off work at 6:30	6시 30분에 퇴근하다	leave the office at 6:30
cancel the meeting	회의를 취소하다	call off the meeting
cut down spending	⇦ 비용을 절감하다 비용을 줄이다 ⇨	reduce expenses
refer to the attached schedule	첨부된 일정표를 참조하다	consult the attached schedule
stop by the shop	가게에 들르다	drop[come] by the shop
resign next month	다음 달 사직하다	quit next month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Basic

Part 1 Read a text aloud

전화번호 읽기

Please call **598-2345.** 598-2345번으로 전화주세요.
five nine eight / two three four five

Please call **1-800-123-4567** 1-800-123-4567번으로 전화주세요.
one eight hundred / one two three / four five six seven

전화번호는 원래 숫자 하나하나를 끊어서 따로따로 읽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미국의 수신자 부담 대표 번호인 1-80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는 앞 부분을 one eight hundred라고 읽는다. 전화번호를 읽을 때는 끝에 오는 숫자를 좀 더 강하게 읽어주도록 한다.

인터넷 주소 읽기

You have to register at **www.abccompany.com**
당신은 www.abccompany.com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Please send an email to **alice@mail.com** alice@mail.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인터넷 주소 읽기 문장에서는 마침표를 dot으로, @는 at이라고 읽는 두 가지 법칙만 기억하자. 따라서 위의 문장에서 웹사이트 주소는 "www dot abccompany dot com"으로, 이메일 주소는 "alice at mail dot com"이라고 읽는다.